

생활인의 신앙

우리는 기계가 됐다



김재동  
가톨릭 종신 부제

최근 미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서는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긴다. 그래서인지 교황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들어 열광한다. 분명 그분이 지니고있는 소박하고 친근한 인간다운 친화력의 카리스마 탓 아닐까.

요즘 세상은 분명 사람이 그리운 세상이다. 군중 가운데 있는데도 외롭기 때문이다. 분명 사람들은 많은데 죽는 다해도 눈길을 주는 사람이 흔치않다. 마치 로봇 인간들 가운데 사는 듯한 적막한 느낌이다. 길가다 사람을 만나도 말 걸일이 별로 없다. 그래서인지, 요즘 세상에 길에서 약도를 묻는 사람은 분명 촌놈이다. 어렸을때만해도 모임에 갈 일이 생기면 우선 약도부터 꼬치꼬치 캐묻고, 그래도 못 찾으면 아무나 붙들고 나서면 해결되었다.

그런 가운데 서로간에 눈길이 오가고 인정이 피어날수 있었다. 그러나 옆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관심 없는 요즘 세상에서는 붙들고 물어보면 오히려 시간 낭비다. 눈앞에 두고도 모른다고 외면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점차 기계에 의존하며 사는 ‘기계 인간’이 되어 살아간다.

물론 첨단 과학기술의 개발로 기막히게 편리한 세상에 사는 건 축복임이 틀림없다. 길목이 나올때마다 상냥한 목소리로 이리거라, 저리거라 지시해주니 그저 가만대로 가면 목적지에 닿게되어 있다.

그렇다보니 운전하는 우리 자신이 마치 로봇이 된 느낌이 들때가 있다. 알지도 못하는 기계의 지시에 따라 아무 생각없이 그저 따라 갈뿐이니 말이다. 그렇게 기계인간이 되어 살다보니 소통이 부족하고 뭔가 인정이 그리워 허한 느낌이 드는것은 나만의 느낌일까.

정말 우리가 몸담고있는 요즘 시대는 자고나면 눈이 어지러울만큼 모든것이 급속도로 변해간다. 얼마전에 산 전자기기가 잠깐후면 구닥다리 퇴물이 되어가는 세상이니 말이다. 도무지 무엇하나 맘잡고 정주며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어서 자칫 허공에 붕 떠서 사는 삶을 살 수 밖에 없다. 인스턴트 음식도 그렇고, 아무런 생각없이 버튼만 계속해서 두드리면 척척 해결되는 ‘인터넷’ 세상이 그렇다. 그러니 여간해서는 사람이 안중에 들어올 수가 없다.

본래 이웃과 함께 어울려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땀’ 흘려 일해야만 행복하게 창조된 인간이, 땀 흘려 사는것이 싫어 ‘편리함’만 찾다보니 막다른 골목까지 오게 된 모양이다. 편리함을 만끽하는 기막힌 세상인데도, 왠지 인간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고 멀어져가는 외로운 외톨이 세상이 돼가고 있다. 알고보면, 영리하다는 인간들이 제 외에 속아 넘어가 스스로 기계 인간이 되어가는 우를 범하며 살고 있는 탓 아닌지 모르겠다. 그런만큼 이웃과의 인간관계 회복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해 오는 걸까.

오랫만에 사람에게 눈길주며 사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인간다운 모습이 그래서 보기에 참 좋다.

drjohnkim33@gmail.com

# “전세계 가톨릭 청년들 모여라”

## 내년 7월 폴란드 크라쿠티 세계청년대회 등록 시작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나는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가 내년 7월 26~31일까지 폴란드의 크라쿠티에서 개최된다.

행사 시작 1년 전부터 참석을 원하는 청년들의 등록을 받는다. 등록이 시작된 지난 7월26일 바티칸의 성 베드로 광장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사를 마친 후 그 자리에서 참가 등록이 시작돼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행사는 1986년 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창시하여 로마 바티칸에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주최로 첫 대회를 했다.

당시 참석자는 30만 명 정도였다. 2년 혹은 3년 마다 각 나라에서 열렸다. 1995년 첫 아시아지역인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었을 때에는 400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참석했다.

최근 2013년 브라질에서 열렸을 때는 370만 명으로 청년중심의 행사 중에서는 참석자들이 가장 많았다.

올해는 특히 개최 장소가 교황 바오로 2세의 고향인 폴란드의 크라쿠티에서 열려 의미가 크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내년은 가톨릭 교회에서 ‘자비의 회년’ 기간이므로 ‘청년들의 회년’이 될 것”이라며 그곳에서 세계 청년들과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피력한 바 있다.

미주 한인 청년들 중에는 이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참석한 세계청년대회에 많이 참석한 바 있다. 피아트 재단(이사장 김기현 신부)이 북미주 한인 청년들을 위주로 참가단을 구성하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원하면 지금부터 등록이 가능하다.

올해 참가단 인솔은 김기현 신부(성 존 노이먼 미국성당 본당신부), 벤자민 트랜 신부(성 안나 성당 보좌신부), 알 바카 신부(성 골롬반성당 본당신부)와 2명의 부제가 맡을 예정이다.

미국 주교회의 청년사목담당인 프랭크 카지아노 주교는 “2016년 세계청년 대회는 모든 청년들이 주님의 자비를 경험하도록 초대받은 자리”임을 강조하면서 “비용이나 낯선 곳에서의 지냈던 희생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해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 우리의 장점이나 단점에 대해 모두 아시면서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청년대회를 통해 깨닫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참가비와 신청방법은 피아트 웹사이트(www.fiat.org)로 하면 된다.

문의: (714) 702-9830

김인순 기자



태하치피에 위치한 태고사가 창사 21주년을 맞아 특별법회를 가졌다. 한국의 학산 대원 대종사 큰스님의 특별법회에 많은 불자가 참석했다.

## 각자의 직업 통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야

### 태고사 21주년 특별법회 대종사 대원스님의 법문

태하치피에 세워진 태고사(주지 형전 스님)는 창사 21주년을 맞아 한국의 학산(한암) 대원 대종사 큰스님을 초청하여 특별법회를 지난달 19~20일 두 차례에 걸쳐 가졌다.

형전 주지스님은 “거리가 멀어 이곳 태고사까지 올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한 차례는 한인타운 달마사에서 특별법회를 실시했다”며 “2곳 모두 법당을 가득 메웠다”고 전했다.

대원스님은 “모든 일을 하더라도 자기를 참구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며 “각자 현재 직업을 통해 살되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원스님은 일상생활 속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주었다. 참석자들은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갈등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도 가졌다.

LA지역 법률 업계에 종사하는 한 불자는 “법을 가까이하다 보니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길과 부합되지 않고 오히려 멀어지는 걸 느낄 때가 종종 있다”며 바른 삶이 어떤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큰스님은 “속이지 않고 열심히 하는 길이 바로 부처의 길이고 자신이 서 있는 그 삶 속에서 나를 탐구하

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답했다.

태고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수덕사 말사로 1994년 9월에 미국인 무량스님이 절을 세우면서 시작되었다. 태고사에서 행해진 큰스님의 특별법회에는 인근의 미국인 불자들도 많이 참석했고 멀리 라스베이거스에서 무량스님 때부터 이 사찰과 인연을 맺었던 불자들이 모여들었다. 남가주 사원연합회, 미주불교 교육문화원, 가주청년 모임(TARA) 등 불교 내 여러 단체도 태고사의 21년 창사를 축하하기 위해 태하치피의 수려한 산중에 자리한 이 절을 찾기도 했다.

문의: (661) 822-7776

김인순 기자



# 선한목자(장로)교회가

## Chino Hills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 새 교회 주소 :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담임목사 고태형**

첫예배 10월4일(주)

1부: 8:00am  
2부: 9:30am(EM)  
3부: 11:00am  
4부: 1:00pm(청년)



www.sunhanchurch.com info@sunhanchurch.com

40주년 기념부흥회

강사: 림형천 목사 (잠실교회)

10/ 9(금) - 8pm  
10/10(토) - 6:30am, 7:30pm  
10/11(주) - 8am, 11am, 2:30pm

40주년 기념음악회

●일시 : 10월 18일(주)  
6:30pm  
●장소 : 새교회 본당

※ 자세한 문의는 선한목자(장로)교회 (626-965-3443)로 해주시기 바랍니다.